

CYBER WORLD

최고의 선율을
위해



To the Next Stage with M
월드테크놀로지센터

News & Topics

04 테크놀로지센터 개설

Customer Report

05 주식회사 토카이기술연구소

07 주식회사 미즈사와철공소

09 N.E.W. Vietnam Co., Ltd.

11 Wolfert's Tool & Machine Co., Inc.

13 MAZAK PEOPLE

15 미술관 정보

2015
No. 46

개설 이후 총 15만명이 방문한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 "기대 이상의 만족"을 손수 제공

「손님에 대한 환대」는 야마자키 마작이 창업 이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 목적은 기계를 구입하신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이해관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마작 브랜드에 대한 강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의 일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입니다.



02



03



04



05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는 "공작기계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이 가진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안하는 한편, 경영 면에서 지원을 염두에 둔 시설"(사장, 야마자키 토모히사)로 2006년 4월 미노 카모 제작소의 인접지에 개설. 국내외에 전개되는 테크놀로지 센터의 중심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연면적은 약 1만㎡. 실내는 상설 전시장 및 솔루션 갤러리, 강당, 상담실, 라운지, 다이닝홀 등으로 구성.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계 15만명(해외 관람자 포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신기계의 전시와 대접을 양축으로

「개설 이후 내걸고 있는 두 가지 기본축은, 최신 기계의 전시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과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카와이 타카노부 센터장). 각각의 축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직원은 기술 솔루션팀,接客팀 중의 하나의 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전시장 운영, 이벤트 기획 등을 담당. 토탈 솔루션의 일환으로 주변 기계 업체와 여는 합동 기술 세미나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며, 약 300명이 수용 가능한 강당의 운영이나 방문객의 응대 등에 담당합니다. 강당에서의 회사 개요 설명은 고객이나 담당 영업의 희망에 따른 다양한 내용을 준비. 적은 인원수라도 강당을 전용으로 사용하며 응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동하는 고객도 많은 듯 합니다.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감사카드

다양한 소재, 형상의 샘플 워크와 가공 사례 등을 엄중별로 모은 솔루션 갤러리의 전시 방법은 일반인도 알기 쉽다는 호평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방문객 개개인에 직접 쓴 감사카드를 건네주는 대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接客팀의 발안에 의한 것으로 메시지만만 아니라 신제품 소개와 주변 관광 안내 등 내용이 풍성하며,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판도 갖추고 있습니다.



▶ 메시지 카드 외에 미노창호지로 만든 명함 케이스 등 다양한 선물을 고안

01. 안내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고객님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02. 강당에서는 회사 개요 설명이 진행되며, 당사 소개 비디오 "Making Tomorrow"가 상영된다
03. 세계의 테크놀로지 센터 중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는 쇼 룸
04. 기계의 설명과 함께 전속적인 운영
05. 「일본을」본뜬 빨강과 하얀색으로 통일된 입구. 천장의 구조는 3D FABRI GEAR에서 가공된 것

사람으로 인한 감동을 전하고 싶다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가 영업 지원을 하는 상담의 장으로써 <기대 이상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중심으로 각, 사람의 힘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설은 물론이고 <사람>으로 인한 감동에 힘쓰고 있습니다”(동).
그 마음 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 스텝 전원이 매월<감사 리포트>를 작성하고 자신 이외의 멤버 개개인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익으면 저절로 고객이나 다른 부서의 사람 등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동).
기계의 진화에도, 진실된 마음에도 <이것으로 끝>이라는 한계는 없습니다. 마작은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고객이 <기대 이상의 만족>을 느끼는 것에서 한층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좋은 시설 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01



02



03



04

- 01. 라운지“Café LUCA”
- 02. 기기의 데모 가공을 견학
- 03. 손님이 돌아가실 때는 스텝이 선물을 건넸다
- 04. 상담 중간에도 즐길 수 있는 골프 연습장

News & Topics



01

- 01. 설비 의욕의 고조가 느껴지는 대성황의 전시 부스
- 02. 기다리는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 MAZATROL SmoothX의 코너



02

세토우치 테크놀로지 센터 내년 봄에 개설
알림을 겸한 솔루션 페어도



마작은 중일본·시코쿠 지방의 고객 지원을 겨냥한 세토우치 테크놀로지 센터 (오카야마 현 쓰쿠보군 하야시 마초)를 내년 봄에 개설합니다.면적은 약 2600㎡로, 건물은 사무실, 소룸, 삼차원 측정실, 회의실, 훈련 스쿨 등으로 구성. 최신 기계와 시스템 등을 갖추고 전문 스텝이 신규 설비의 검토나 생산 합리화의 상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일본 테크놀로지 센터(히가시오사카시)나 큐슈 테크놀로지 센터(후쿠오카 다자이후시)까지 먼

걸음을 했던 이 지방의 고객에게 있어서, 교통을 포함한 편리성 높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사전 고지를 겸하여 6월 19,20일 콘 벅스 오카야마에서 열린 <솔루션 페어 in세토우치 2015>에 2000명을 넘는 관람객들이 참가. <교통편이 좋아 마작과 좀 더 가까워진다><멀리 가지 않아도 마작트를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등, 개설을 기다리던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헝가리 테크놀로지 센터가 내년 봄 개설 중부
유럽의 지원 강화 담당하는 14곳의 시설

마작의 14번째 유럽 지원 시설이 되는 헝가리 테크놀로지 센터가 내년 봄 오픈합니다. 자동차, 전기, 일반 기계 등 각 산업 관련의 활발한 해외 기업 인수에 따라, 확대 되어지고 있는 공작 기계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고객 지원 강화를 담당하는 거점으로서도 기대 되어집니다. 수도 부다페스트 근교, 공업 단지 내 개설 예정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유럽 마작 그룹 총 지배인인 마커스 버튼을 비롯한 유럽 지구의 수뇌부들이 참석, 일본식의 기공식 행사인 첫 삽에 임했다.



01



02

- 01. 기공식 행사인 첫 삽에 임하는 모습
- 02. 헝가리 테크놀로지 센터 완성 예상도



01

Customer Report 01

의뢰받은 일은 결코 거절하지 않는 기술력과 긍지



Japan 주식 회사 동해 기연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기쁘게 작업한다〉. 주식 회사 동해 기연(기후 현 에나 시, 카토 히사오 사장)의 회사 방침은 명쾌합니다. 회사 이름에 〈기연〉이 붙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이 회사의 회사명에도 〈샘플을 통해서 자사의 기술력을 세상에 평가 받고 싶다라는 카토 사장의 장인 정신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은 샘플은 동해 기연으로 가지고 가라〉라는 동업자의 평가는 어떻게 나온걸까요?



Gifu, Japan



02



03



04

- 01. 정돈된 공장 내에 마작의 오렌지 색이 빛나고 있다
- 02. 진지한 눈빛으로 작업에 집중하는 작업자
- 03. 타협하지 않고 정확성에 대한 집착
- 04. 작업할 때의 진지한 표정과 달리 미소가 멋진 사원 분들

COMPANY PROFILE //////////////////////////////////////



주식 회사 동해 기연

대표 이사 사장 : 카토 히사오
소재지 : 기후현 에나시 오오시마초 나가타 307-54
종업원 수 : 56명

www.tokaigiken.com



라인에서는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를 작업하는 것으로 생산성을 향상. 손이 많이 가는 1000종류 이상의 아이템은 모두 바코드로 관리하고 언제든지 누구나 어디서나 제조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난삭재를 포함한 방대한 소재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납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창업 때부터 도입한 여러 대의 마작 기계입니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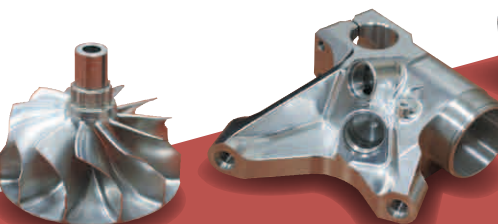


기술력 있는 작업자가 모든 주문에 대응

앞으로의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의 성장에 대한 기대

〈오늘의 발전은 마작 기계라는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화형 마작트를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공법 변경 요구에도 쉽게 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동)

이 회사의 샘플 라인에는 VARIAXIS 500-5XII를 비롯하여, 동시 5축기와 각종 머시닝 센터가 중심 기종이 되어 신속한 가공을 실현. CNC 선반 가공 구역에서는 QUICK TURN NEXUS 200-II과 QUICK



Customer Report 01
Japan 주식 회사 동해 기연

TURN 200이 주력으로 45 대의 마작 기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작 기계는 작업자의 교육에 의해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카토 전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난이도 높은 작업이야말로 마작 기계가 도움이 되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기계와 사람의 균형을 수레의 두 바퀴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도 향후 교육을 충실히 도모하고 싶습니다.〉(동)

이 회사는 사원 연수의 장소로서 마작의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를 활용. 연수의 성과는 현재 증설하고 있는 공장이 본격 가동될 때, 납기 단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개최된 올해의 사원 연수



주식회사 미즈사와 주물공업소

대표 이사 사장 : 오이카와 카츠히코
소 재 지 : 이와테현 오슈시 미즈사와구 타이니치도모리 1-8-15
총 업 원 수 : 58명



주조, 기계가공, 분체도장의 일관생산으로 임하다

당사의 특징은 주조에서 시작되어 기계가공, 분체도장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주 후, 신속하게 제품화가 가능한 것도 부지내에서 완결되는 일관생산방식이기 때문입니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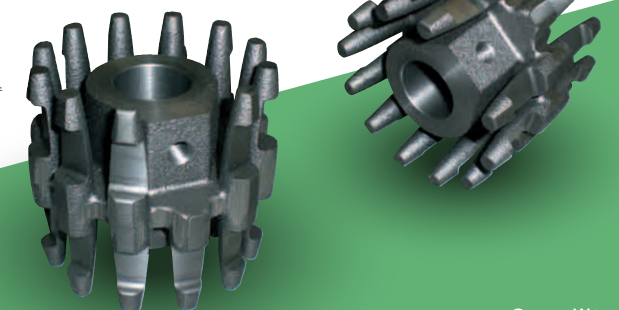
곡면형상이 연속되는 모방가공

이 생산체제의 기계가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CNC선반과 복합가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마작의 제품군입니다. 마작기와 의 연은 기계가공을 시작한 1984년의 QUICK TURN 10부터 시작되었으며, 내솔제조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신규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솔개발의 포인트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두텁게 주조하여 얇게 깎아 내는 것 입니다. 얇게 깎아 내는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마작 동북테크놀로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의 작성 등에서 협력을 받아 조지루시의 새로운 요구수준을 멋지게 해결하였습니다.

장래에는 자사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체제를 정돈 하고 싶다

「이상적인 두께 가공에 공헌해온 것은 폐사의

▶ 당사에서 제작하는 주조제품.
깨지기 어려운 구상 흑연 주철을 취급할 수 있는 기업은 같은 현내에서도 적다



사철, 목탄, 양질의 모래와 점토. 주물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점이 돋보였던 이와테현 오슈시의 남부철기. 미즈사와 주물공업소는 이러한 산지기반을 살려 1946년에 창업.

63년에는 현재 장소로 본사공장을 옮겼습니다. 69년에는 현재 체제를 개편했으며, 보통 주철, 구상 흑연 주철에 의한 주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 기계부품이 주력이었던 당사에 전자밥솥의 내솔 제조 의뢰가 들어온 것은 2010년말의 일입니다. 신제품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내솔을 가공 가능한 회사를 일본내에서 찾고 있었던 조지루시가 3년이란 시간을 들여 찾아낸 것이 당사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예전부터 수많은 마작기를 도입하고 있다

「조지루시에서 요구하는 주물의 정도와 전국판매를 응시한 양산에 부응하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솔제조에 적합한 구상 흑연 주철을 양산 가능한 곳이 당사 밖에 없었으며, 주조와 가공의 양방이 가능한 것도 평가된 것 같습니다.」(오이카와 사장) 결과적으로 이 제품에 종사함으로써 당사는 13년도의「물건만들기일본대상」 전통기술의 응용부분의 경제산업성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Customer Report 02

주물의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넓힌 내솔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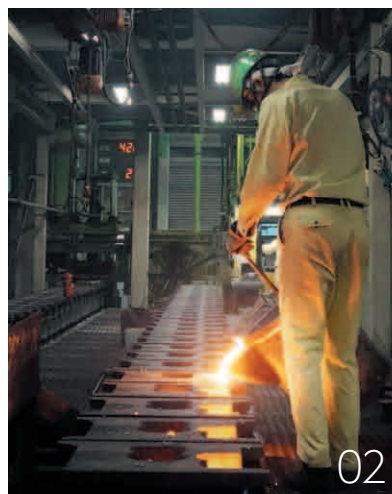


Japan 주식회사 미즈사와 주물공업소

전기밥솥, 온수세정변기, 보온병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삼대 상품입니다. 그 첫번째를 장식하는 전기밥솥의 히트작, 조지루시 「키와메하가마」의 내솔을 독점, 가공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미즈사와 주물공업소 (이와테현 오슈시 오이카와 카츠히코사장) 입니다. 남부철기의 산지기반을 배경으로 선박부품과 철도의 건널목 경보부품을 다루던 당사가 가전제품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Iwate, Japan



02



03



04

01. 전기밥솥의 내솔. 남부철기의 중후함과 여성도 취급하기 쉬운 절묘한 두께를 추구
02. 1500℃의 철을 주형에 흘려 넣는 모습
03. 주조에서 시작해, 기계가공, 분체도장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가 당사의 강점
04. 오이카와 카츠히코사장(앞열 왼쪽에서4번째)을 둘러 싸고 있는 기계가공과 직원들



Customer Report 03

글로벌 전개에 대비하여 정밀부품을 일관생산

Vietnam N.E.W. Vietnam Co.,Ltd.

N.E.W. 베트남社は 냉간단조전문 주식회사 나가쿠라제작소(시즈오카현,누마즈시, 나가쿠라 슈지 사장)가 2002년에 문을 연 베트남의 현지공장입니다. 나가쿠라제작소가 일본에 냉간단조 처리를 한 고정밀 부품의 기계가공을 담당해, 이곳의 부품은 모두 미국, 일본, 중국, 타이,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해 100대가 넘는 마작기계에 의한 제조라인을 갖추어 글로벌 전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2



03

- 01. 공장내의 모습. 매일 젊은 현지인 스태프가 왕성히 활약하고 있다
- 02. 넓은 공장 내에는 선반이 빼곡히 줄 서있어 그 규모를 떠올리게 한다
- 03. 나가쿠라테츠히 GM(우)과소지타케히토 과장

COMPANY PROFILE //////////////////////////////////////



N.E.W. Vietnam Co.,Ltd.

대표이사 : 나가쿠라 슈지
소재지 : No.7 Road, Long Binh Industrial Zones (Amata),
총업원 수 :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Vietnam
: 1200명

www.nagakura-mc.co.jp

 N.E.W. Vietnam Co.,Ltd.

나가쿠라제작소는 1950년의 창업으로 자동차, 이륜차의 냉간단조 제품이나 정밀 성형부품 등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사업을 확대, 85년의 수출을 시작으로 94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100% 출자의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전개를 차차 추진해 왔습니다. N.E.W.베트남社の 설립과 창업은 그 일환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제2공장, 13년에는 제3공장을 증설 하는 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의 활기로 기계의 도입이 계속되고 있다

「소재부터 일관생산과 품질보증을 실시하는 베트남 유일의 공장」(나가쿠라히로미 상무)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듯 고주파담금질(침탄, 불림), 연마, 호빙 가공까지 모두 한 곳에서 대응 가능하고 현지에서는 원 스톱 형식의 생산 체제의 성공 예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통상,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계 자동차 부품 메이커의 부품 공급이 아시아와 일본에 치우치기 쉽지만 이 회사는 유럽, 미국 시장의 수요를 중시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생산이 왕성하지 않은 베트남 상대의 일은 없는 것이 특징 입니다.



아시아 진출 때부터 마작기계를 검토했다는 나가쿠라 상무(우)

QUICK TURN PRIMOS의 개발에도 쓰인 실천적 제안

당사에서 가동하고 있는 설비기계는 약 700대 이중 약 20%에 달하는 150대 이상을 마작기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작 싱가포르공장 제작의 QUICK TURN PRIMOS 150 S 와 QUICK TURN SMART 150 S 「기계의 사이즈, 성능 모든 것이 당사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기계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지원을 싱가포르와 베트남(호치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매력적입니다。」이 회사가 마작기계를 선택하여 지속적인 추가발주를 하는 이유 입니다. 나가쿠라 상무는 마작과의 관계를「아시아의 발전을 넘어 중요거점으로 하려는 생각이 공통되어있다. 라고 해, 메이커와 유저의 혼한 관계가 아닌 가치관을 같이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QUICK TURN PRIMOS의 개발 중에는 단골고객의 입장에서 제안한 실천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제안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본 결과 사이클타임이 타사의 기계보다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을 육성하여 일하기 좋은 회사환경을 마련

공장 운영면에서 특징은 나가쿠라테츠히라 GM을 시작으로 양국 스태프의 나이는. 30대 매니저로 등용된 현지인 스태프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진출공장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직률이 높은 베트남에서 이 공장은 경이적으로 높은 정착률과 직장환경의 좋은 점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업 당시부터 현지인 스태프가 있는 것은 편안함의 증거, 세계에서든 통용되는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지 스태프의 기술계승을 정착시키고 싶습니다。」북중미,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의 교류를 늘려 세계제패를 하고 싶은 이 회사는 현지 스태프의 기술계승은 글로벌 전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외, 멕시코에서도 마작 싱가포르 공장제의 기계가 활약 중, 앞으로도 세계제패를 향해 점점 더 활약이 기대가 된다



▶고정도 압축가공과 금속성형기술의 총력을 결집시킨 넷세이퍼



01

Customer Report 04

자동차부품에서 기타까지, 무엇이든 기쁘게

U.S.A. Wolfert's Tool & Machine Co., Inc.

작년 열린 IMTS2014 (통칭 사카고쇼) 에서 마작은 켄터키공장의 독자 개발기를 다수 공표하였습니다. 같은 부스에서 기계와 마찬가지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 잡았던 것은 순수한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켄터키공장 창립40주년 기념기타」였습니다. 기증한 것은 부품가공업의 Wolfert's Tool & Machine Co., Inc. (켄·윌하트사장). 그는 가공물을 선호하지 않는 확실한 기술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St. James, Missouri



02



03

01. 윌하트사의 「Metalin」기타, 획기적인 디자인이 나열된 모습
02. 공장내의 QUICK TURN NEXUS 250-II MSY
03. 「Metalin」기타,매장직원 여러분

COMPANY PROFILE //////////////////////////////////////



Wolfert's Tool & Machine Co., Inc.

대표이사 : Ken Wolfert
소재지 : #5 Industrial Drive St. James, MO 65559
종업원 수 : 16명

www.wolfert.com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다공정과 세부가공

부품가공과 공동사업의 핵심인 기타제조는 스스로도 연주자로서 기타에 관계가 있는 윌하트사장의 발안에 의한 것 입니다. 목재기타의 주요소재인 떡갈나무의 고갈을 우려해 대책안으로써 바스트씨에게 설계를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행착오를 걸쳐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Metalin」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온도변화, 습기와 같은 시시각각 바뀌는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온난차가 심한 지역을 배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튜닝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작트를 조작하는 오퍼레이터

마작기의 안정된 성능으로 바디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제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음색은 다공정과 복잡한 세부가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가공을 반복할 때의 정도가 훌륭할 뿐 아니라 주문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특수프로그램을 짜 넣는 것 만으로 끝나므로 경비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바스트씨)



Metalin'기타를 고안한 윌하트사장(우)과 오퍼레이터의 테사로써

IMTS의 마작부스에서 화젯거리가 되었던 기념기타는 현재 미노카모제작소에 근접해 있는 월드테크놀로지센터에서 관람자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공의 대부분을 맡는 것은 VERTICAL CENTER NEXUS 510C이었습니다. 「회장에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마작로고를 새기는 것이 아닌 깎아내어 로고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스탠드에서는 모터를 설치하여 어디에서라도 보이도록 했습니다.」 윌하트사장)



▶ 기타 스탠드의 조형도 독특하다

MAZAK PEOPLE

Yamazaki Mazak Trading Corporation / E/L Section

🇯🇵 다케우치 다이키 씨 Mr.Daiki Takeuchi

경험은 자신의 시야를 넓힌다

제조에서 판매, 애프터 서비스까지 국내외에 많은 관련 거점을 전개하는 야마자키 마작. MAZAK PEOPLE은 그들 각사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다룹니다.

이번에는 올해 4월로 5년 8개월간의 싱가포르 근무를 마친 야마자키 마작 트레이딩(YMT)의 타케우치 다이키 씨. 그의 활약을 밀착했습니다.

PROFILE >> 타케우치 다이키 씨

2006년 YMT선적 업무와 E/L팀에 배속.
09년 싱가포르에 부임. 15년 YMT E/L업무과 복귀. 휴일은 세차 → 드라이브 → 영화 감상으로 힐링. 1983년 아이치현 지타시 태생.

— 입사 후의 경로는?

현업무의 전신적인 선적업무과의 E/L팀에 소속되어 기계를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 허가를 일본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업무에 3년 동안 종사했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에 부임하면서 국내에서 하던 업무에 추가로 수주 보고 및 재고기 관리 등의 숫자의 집계, 납기·사양 문의 등 해외 판매사와 일본 본사를 잇는 창구로써 영업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 싱가포르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평범하지만 문화적인 면입니다. 부임한 초기에는 일의 진행 방식이나 생각의 차이에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고방식 있다”고 애써 받아 들이도록 노력 했습니다. 이 경험은 시야를 넓히고 사물을 보는 훈련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견과 생각의 차이를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와의 이야기가 원활히 진행되거나 뜻밖의 재미 있는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현지 생활은?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고, 영위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현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나 유럽에서 부임한 사람들과의 식사나 바비큐 등에 참여해서 다른 문화를 접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은 취미인 영화, 연극 감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부임할 때까지 E/L이외의 업무 경험이 없고 싱가포르에서 맡은 영업 업무는 모두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등 일련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체면 생각할 여유도 없으니 모르는 것은 납득될 때까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돌아보면 하찮은 질문을 받아 준 사람들에게 꽤나 폐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당시 고생으로 얻은 지식이 이제는 저에게 큰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배외와 화상 회의 중

「상대가 고객이면 동료이면 내용이 무엇이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특히 상대가 곤란해 있는 것에 대한 제안에 기뻐할 때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타케우치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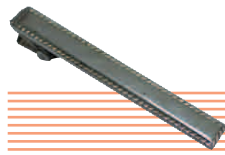
싱가포르 부임에서 펼쳐진 세계관이나 식견은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타케우치 씨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타케우치씨의 비즈니스 아이템

우수한 비즈니스인은 업무상의 파트너로서 잡시도 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타케우치 씨의 추천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넥타이 핀

입사할 때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넥타이 핀. 예전에 학교의 교원으로 일할 때 쓰시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복 착용시에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으므로 일종의 부적 같은 존재입니다. 쿨비즈 기간에 간편한 차림을 할 때도 바지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고 있습니다.



News & Topics

『MF-Tokyo 2015』에서 레이저의 최신 기술을 제안



01



02



MF-Tokyo 2015

Metal Forming & Fabricating Fair Tokyo

일본 최대급의 프레스·판금·성형전「제4회 MF-Tokyo 2015」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도쿄 빅 사이트에서 열렸습니다. 223사 총 1304부스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전회를 웃도는 3만명 이상이 입장. 야마자키 마작은 『다음 세대의 문을 열다 To the Next Stage with M』을 주제로 3기종을 갖추어 기술 세미나 등을 나누고 레이저 가공의 혁신적인 제조업을 제안했습니다.

주목을 끈 신형 자사 토치 채용기

부스에서는 자사 개발한 멀티 컨트롤 토치를 채용한 신형 섬유 레이저 가공기「OPTIPLEX 3015 FIBERⅡ」가 주목도 넘버원 「OPTIPLEX

NEXUS 3015」는 10단 팔레트 체인저가 부가되어 장시간 운전 가능한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양하고 긴 소재를 자유 형상으로 3차원 절단하는 3D레이저 가공기「3D FABRI GEAR 220Ⅱ」는 이 기종을 목적으로 많은 손님이 방문할 정도로 스테디 셀러의 존재감을 과시. 각 기종 모두 막대한 공정 집약이 가공 제품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실연해 보였습니다.



03

01. 부스 전경. 대형 화면에서는 3D FABRI GEAR의 납입 사례를 소개
02. 사각파이프를 이용한 생산 효율의 체험 코너를 마련하는 등 부스 안은 연일 북적거렸다
03. 부스 내의 아카데미에서는 마작기의 매력을 남김 없이 소개!



레이저 가공기의 참가 모델로써 가격대비 높은 성능과 효과를 추구

OPTIPLEX NEXUS 3015



사진은 2팔레트체인저 (옵션)사양

- 수많은 인텔리전트 기능이 가공 프로세스를 서포트
- 터치 패널식 CNC장치 MAZATROL PREVIEW 3탑재
- 형상 간이 입력 기능에 따른 패턴 입력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 | |
|------------|--|
| 레이저 출력 | 2.5 kW |
| 최대 가공 치수 | 1525×3050 mm |
| 이동량(X/Y/Z) | 3100/1580/150 mm |
| 기계의 외관 치수 | 6450×2960×H2420 mm (표준사양) 11925×5525×H2420 mm (2팔레트체인저, 옵션사양) |

이번호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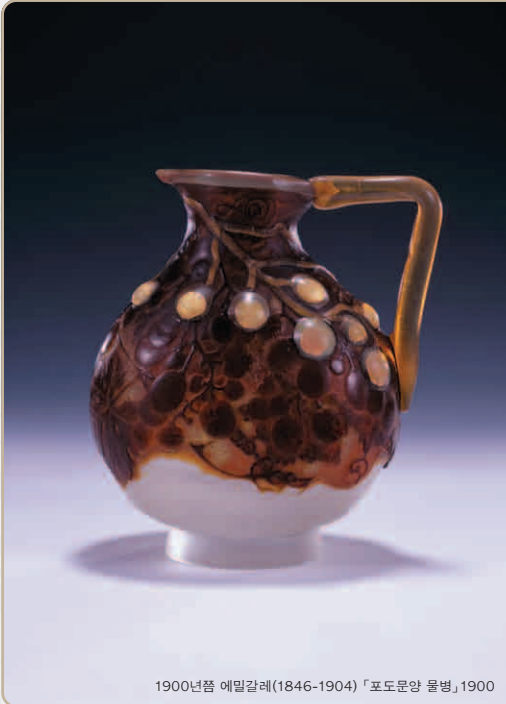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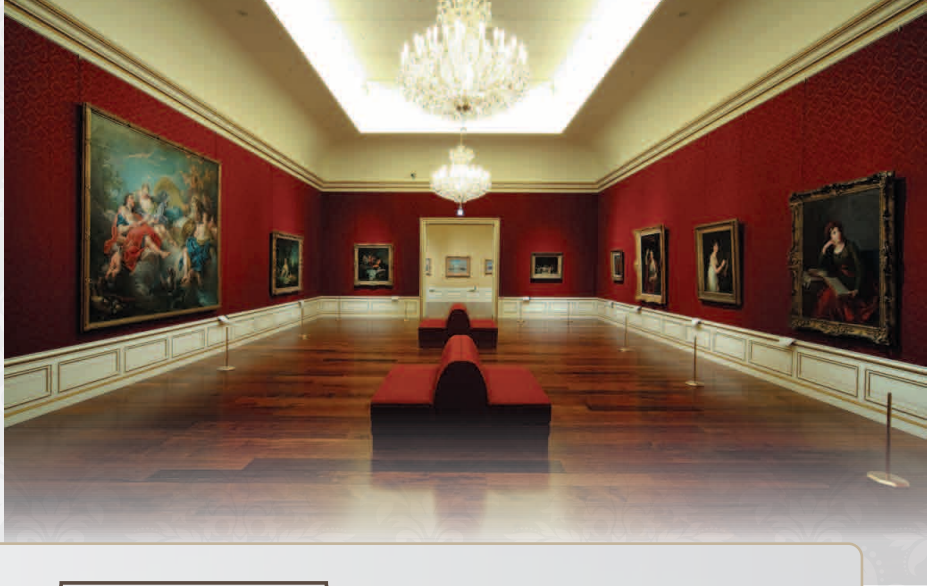


2015년의 사이버월드를 매듭짓는 것은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에 전시 중인 “월 하트사”의 기타(켄터키 공장 창립 4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바디의 아름다운 빛이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는 다양한 가공 작업을 전시중입니다. 자동차·항공기·에너지·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공작 기계의 가능성을 꼭 이곳 월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마자키마작 미술관은 미술감상을 통해 풍부한 지역사회의 창조, 나아가 일본, 세계의 미와 문화에 공헌하고자, 나고야의 중심지 아오이초에 2010년 4월에 개관 하였습니다.

당 관은 창립자인 초대 대표관장인 야마자키테루유키(1928-2011)가 수집한 18세기부터 20세기에 달하는 프랑스 미술 300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 작품과 아르누보의 유리공예나 가구 등, 야마자키마작의 컬렉션을 소장·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900년품 에밀갈레(1846-1904) 「포도문양 물병」, 1900

THE YAMAZAKI MAZAK MUSEUM OF ART

소장작품 소개 ①

에밀갈레「포도문양 물병」

덩굴을 넓혀 수많은 미를 추구한 포도는 예로부터 다산풍요의 상징으로써 도자기나 그림 등에 그려져 왔습니다. 와인의 원료로도 친숙하고 성서에서는 「신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던 것으로 보아 갈레는 포도를 모티브로 여러 가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도자기 전체에 휘감는 포도의 열매와, 향기로움을 느끼게 하는 깊은 갈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층층이 쌓아 올린 포도의 가지와 열매는 알누보의 특징인 유기적인 곡선미를 살렸습니다.

바로 앞에 펼쳐진 신선한 포도의 열매는 카보송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카보송이란 중세 프랑스어로 「머리」를 의미하는 말로써 돌을 둥근 산 형태로 다듬는 보석의 가공방법입니다. 본 작품에서 금박을 입혀 반원의 오팔유리를 융접했습니다.

설탕공예처럼 자유롭게 붙여진 가지와 포도의 열매의 황금의 아름다운 빛은 마치 풍요로움을 연상케 합니다. 만년의 갈레다운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THE YAMAZAKI MAZAK MUSEUM OF ART

소장작품의 소개 ②

카미유피사로「루앙의 부두·석양」

일찍이 노르망디공원의 수도로 번창했던 루앙은 로마 시대부터 세느강을 이용해 수군의 거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화가 피사로가 처음으로 루앙에 장기 체류한 것은 1883년입니다. 이 마을에 반하게 된 피사로는 1896년에 다시 방문하면서 부두를 내려다보며 호텔의 창문으로 활기 넘치는 항구의 모습이나 세느강의 다리 등 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두의 오른쪽 암벽에서 본 왼쪽 암벽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은 9월 8일부터 11월 12일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석양이 질 때 부드러운 태양의 빛과 그것을 반영하는 수면에서 떠오르는 수증기가 배의 돛대나 그림자의 검은색과 대비에 의해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항구의 공기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피사로는 파리 근교의 전원주택에 살면서 풍경을 주제로 그림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인상파의 화가라 하면 피사로 그 외 마네, 모네, 르누아르, 도가, 시스레 등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상파전」은 1874년 제1회전부터 1886년 제8회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회 전부 참가한 사람은 피사로 뿐이었습니다. 피사로야말로 말로 순수한 인상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미유피사로(1830-1903) 「루앙의 부두·석양」 약 1896년